



서지학자 오영식씨 한국선수단 활약상 담은 체육잡지 ‘체육문화’ 2호 공개

“1948년 런던올림픽 기수는 손기정 선수”

체육사적 연구가치 높아

“개막식은 62개 참가국이 각각 자국의 국기를 쓴 표치(標幟)를 선두로... 우리는 태극기를 든 기수 손기정(孫基禎)군을 선두로 이열종대로 입장을 하는데...”

1948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한국선수단의 이병학 총감독이 이화여대에서 한 올림픽 결산 강연 내용이다. 이병학 총감독은 이 강연에서 당시 한국선수단의 기수가 손기정(사진) 선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근대사학회 편집위원이자 서지학자인 오영식(서울 보성고 교사)씨는 이병학 총감독의 강연 내용을 비롯해 1948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의 활약상을 소개한 체육 전문 잡지 ‘체육문화’ 2호를 공개했다.

‘체육문화’는 체육문화사가 발간한 체육 전문 잡지로 창간호는 1948년 4월 25일에 나왔다.

특히 1948년 런던올림픽을 집중 조명한 ‘체육문화’ 2호(1949년 3월 15일)는 런던올림픽 당시 한국 선수단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사적 연구 가치가 높은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오영식씨는 최근 “‘체육문화’ 2호에는 1948년 런던올림픽을 결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영문으로 ‘KOREA’가 새겨진 피켓과 태극기를 앞세우고 입장하는 한국 선수단의 사진도 실려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 특집호인 ‘올림픽 귀환 보고호’로 발간된 ‘체육문화’ 2호는 한국 선수단이 매 경기 페어플레이를 펼친 것은 물론 외교적으로도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평가했다.

“태극기를 두 차례에 걸쳐 게양하였고 각종 경기에서 있어 아마추어리즘에 투철한 페어플레이로써 수심만 관중의 호평을 받았으며 영국 왕실, IOC, 런던 시장, 각종 국제경기연맹 초대 등 축연(祝宴)을 통하여 국제 친선, 국민 외교에 있어서 적지않은 역할을 하였음.”

한국은 ‘KOREA’라는 국호를 달고 처음 출전한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김성집(역도)과 한수안(복싱)이 동메달을 따내면서 국제 스포츠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올림픽후원회장이었던 안재홍 선생도 ‘올림픽’은 국민외교의 좋은 기구(機構)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 이외의 선수 및 대표 일행의 행동으로 관계 열국민(列國國民)에게 상당한 호인상

을 준 바가 적지않은 것”이라며 국위를 선양한 선수단을 높게 평가했다.

이병학 총감독은 이화여대에서 한 강연 내용을 정리한 ‘올림픽에서 돌아와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수단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5파운드의 수수료를 내고 황병관(레슬링) 선수에 대한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일, 콘사이스 영여 사건을 준비해간 일 등 올림픽 뒷이야기도 들려줬다.

“황(병관)선수의 승부에 있어서도, 심판에 이의가 있어서 오(파운)에 수수료를 부쳐 항의를 제출하였는데 우리의 항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재차 승부를 갖게 되었지만 황 선수가 기권하여 그만두게 되어 수수료는 다시 찾았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최초의 여자 선수인) 박봉식 양의 투원반(원반던지기)이 (우리 선수단의) 최초 출전이었습니다. 동양에서 여자 선수 일인(一人)이 왔다는 것이 큰 이채(異彩)가 되었습니다. 각 신문에도 특별 대서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선수단 명부, 선수단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경기장에 입장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박봉식 선수의 경기 장면을 찍은 사진 등 희귀 사진과 자료도 대거 실려 있다. /연합뉴스

강진군 다문화가정 5쌍 합동 전통혼례식



강진군은 최근 대구면 청자촌 상설무대에서 ‘제40회 강진 청자축제’ 부대행사의 하나로 5쌍의 국제 합동 전통혼례식을 가졌다. <강진군 제공>

서부경찰 아동안전지킴이 간담회



광주서부경찰(서장 김홍균)은 최근 경찰서 회의실에서 아동안전지킴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안전지킴이 간담회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서부경찰서 제공>

순천소방서 중·고생 대상 소방안전 교실



순천소방서(서장 나윤환)는 최근 안전체험관에서 순천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실을 개최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jj@kwangju.co.kr

호남대 IT스퀘어 ‘IT영재캠프’



호남대학교 IT스퀘어(단장 정영기)는 6일부터 10일까지 ‘IT영재캠프’를 실시한다. 광주시 교육정보원 IT영재 63명이 참가하는 이번 캠프에서는 실무자 특강과 로봇경연대회 등을 실시한다. <시민기자 주영수>

K-water 전남본부 피서객들에 생수 제공



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신승윤) ‘남도다시습이’ 봉사단원들은 최근 광주 례게이트에서 광주·전남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자체 생산한 병물 5000병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런던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펜싱 최은숙

힘든 가정환경·부상 이겨낸 ‘광주의 딸’

지난 5일 런던올림픽 여자 펜싱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광주시 서구청 소속 최은숙(26)〈본보 6일자 14면〉은 어려운 가정환경과 부상을 이겨낸 선수 중 하나다.

최은숙은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님 아래 태어나 부유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구두수선을, 아버지는 건설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었다.

그런 최은숙에게 펜싱은 하나의 위안이자 돌파구였다. 조용한 성격이지만 경기장에서는 달랐다. 그는 강한 승부욕과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3년 태극마크를 달았고, 2006년에는 도하 아시안게임 때 정효정과 호흡을 맞춰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동메달,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 단체전 동메달 등 눈부신 활약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7년전 부상을 당한 오른쪽 무릎 연골과 왼쪽 고관절이 항상 그를 괴롭혔다. 그래도 최은숙은 올림픽 메달을 목표로 진통제를 맞아가며 선수생활을 이어나갔다.

서구청에서 최 선수를 지도해온 박광현(46) 감독은 “은숙이는 아픈 무릎을 이끌고도 하루 8시간 넘는 운동을 하면서 불평 한마디 안했다”며 “5일 전화 통화에서 4년 뒤 올림픽에서는 꼭 금메달을 따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조선대 국제여름학교 참가 대학생들 “한국문화 좋아요”

조선대학교와 자매결연한 일본 대학 학생들이 ‘가깝고도 먼 이웃’인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친선을 다지기 위해 조선대를 방문했다.

조선대가 6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개최하는 ‘2012 International Summer School’(국제여름학교)에 와세다 대학생 10명과 시즈오카 대학생 6명, 토호쿠 대학생 1명 등 일본 대학생 17명이 참가했다.

조선대는 매년 여름방학에 자매결연한 일본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일본어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교환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설, 일본 대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대학 및 국가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International Summer School’로 명칭을 변경,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조선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기자 박지영>

“이상봉씨가 디자인 한 ‘대한민국’을 입으세요”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씨(사진 왼쪽)와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교육원 교수〈오른쪽〉가 광복절 기념 캠페인 ‘8·15 태극기를 입어라’를 펼친다고 6일 전했다.

티셔츠를 디자인한 이 씨는 “건곤감리를 굵은 붓터치로 원을 그려 태극무늬를 강조하고 태극 안에 ‘대한민국’을 한글로 썼다”고 설명했다. 티셔츠는 G마켓(www.gmarket.co.kr)에서 판매되며 수익금 일부는 저소득 가정의 태극기 보급에 쓰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인사

◆순천시
◇송진(4급) ▲평생학습센터소장 류승진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5급) ▲건축과장 조준익 ▲해룡면장 직무대리 최삼립 ▲향동장 “ 정선순 ▲덕연동장 “ 류시은 ▲왕조1동장 “ 조해남 ▲친환경농축산과장 “

박채수

◇6급) ▲기획예산과 강구연 ▲경제통상과 신은숙 ▲건설재난관리과 이양숙 ▲여성가족과 정미 ▲도시과 장창영 ▲건설재난관리과 서준원 ▲친환경농축산과 김성진 ▲보건위생과 송전용

내방

▲황지해(정원디자이너)씨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062-622-2200)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중천회

▲달성판서공파조 추모제(회장 배신수)=9월 4일(화) 오전 11시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령리 수동중학교(참석대상은 함양군민 및 배씨 후손)

알림

▲중고컴퓨터 기증하실 분=광주·전남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 장애인에게 중고 PC를 기증하실 개인, 단체, 기관 환영. (사)장애인복지회 광주·전남운동본부 062-511-0030.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앰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

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습관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 오락 등)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프르네 학습증진컨설팅 저소득층자녀 무료상담=학교부적응, 성적부진, 성격저하, 교우관계, 정서장애, 게임중독. 010-6392-7137.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원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모집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대상자=미취학 아동·어린치료, 전화·내방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길라잡이 프로그램=(베이비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상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센터=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풍·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충민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상당·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오치 배드민턴 클럽 회원=오후 7시30분~10시 30분까지 우산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문정 배드민턴 클럽 회원=오후 7시30분~10시30분까지 문산초·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풋볼프 회원모집 및 친선경기주장원 선발=발로 볼을 차 흠에 넣는 풋볼프 회원 모집,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볼프장 010-4604-4608.

▲진원한호전문학원 간호조무사교육생=국비지원혜택·고용보험가입 근로자 혜택. 062-653-6690~1.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

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외국인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인종이나, 종교, 외국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가정 등. 손님용 숙박 및 침구제공, 아침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시 관광진흥과 062-613-3633,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이미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댄스 및 에어로빅. 지원자격은 대학생 및 현업 종사자 061-330-4169.

▲용마 축구클럽 회원=매주 건강한 생활 추구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용산 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7~11시까지. 011-607-7462.

▲건강수치침 회원=매주 목요일 오후 2~3시20분까지.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진원요양보호사 교육생(국비지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

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부음

▲배원진씨 별세 한국·한국·한국·한국씨 부친상=발인 8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현홍용씨 원관 근우·공임·덕자·애숙·지혜씨 부친상=발인 8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서복실씨 김용수·용두·공순·장례·공임씨 모친상=발인 8일(수)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이태봉씨 별세 병환·수영·채영·수진씨 부친상=발인 7일(화)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이복순씨 별세 수현·소현씨 부친상=발인 7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7분향소 062-231-8907.

▲이춘식씨 별세 진한·인선·인영·인미·인옥·인정씨 부친상=발인 7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謹 故 人 之 冥 福 을 빕 니 다 弔	
故 이 성 기(남/65세) 未亡人: 손순희 子/子孫: 이 혁 / 한명희·건석 / 女/婿: 이은미/류제훈 • 호실: 401호 • 장지: 안도 고당면선영 • 연락처: 227-4083	故 서 성 구(남/74세) 子/子孫: 서해중/김숙희, 민중/김순미 • 호실: 402호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14
故 윤명숙 님(여/71세) 子/子孫: 안정일/박정희, 건일/김현주 女/婿: 안미옥/노형철 • 호실: 101호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5	故 오석호 님(남/73세) 子/子孫: 오남기/김현호 女/婿: 오남희/김재호 • 호실: 102호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6

마지막까지 평안한
孝 金 浩 正 례 식 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